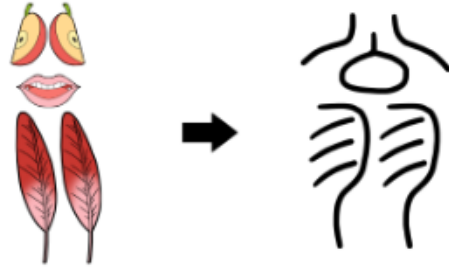


형성문자 ①



翁

늙은이
옹

翁자는 '늙은이'나 '어르신'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翁자는 공(공평할 공)자와 羽(깃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공자는 사물을 반으로 나눈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공→옹'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翁자는 본래 새의 '목털'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하지만 후에 '노인'이나 '아버지'를 존칭하는 말로 가차(假借)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더는 쓰이지 않고 있다. 翁자가 '노인'을 뜻하게 된 것은 가늘고 하얀 새의 목털이 나이가 지긋한 노인의 머리칼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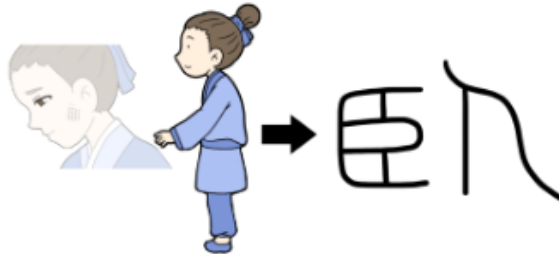
翁

소전

翁

해서

회의문자 ①



臥

누울 와:

臥자는 '엎드리다'나 '눕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臥자는 臣(신하 신)자와 人(사람 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臥자는 고개를 숙인 사람의 눈을 그린 것이다. 臥자의 금문을 보면 臣자와 人자가 ㄱㄴ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人자가 마치 바닥에 누우려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여기에 臣자가 결합한 臥자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바닥에 눕는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臥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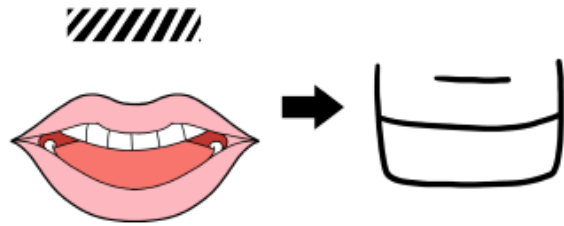
臥

소전

臥

해서

지사문자①



曰

가로 알

曰자는 '가로되'나 '말하기를', '일컫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曰자는 口(입 구)자 위에 획을 하나 그은 것으로 '말하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지사문자(指事文字)이다. 曰자는 '말하다'와 관련된 다른 어떤 글자들보다도 가장 먼저 등장한 글자로 단독으로 쓰일 때는 '말하다'나 '말씀하시다'와 같은 뜻을 전달하고 있다. 曰자는 '~曰(~께서 말씀하시다)'와 같이 고전이나 고문서에서의 한문투로 사용되는 편이다. 그러니 曰자는 비교적 고어(古語)의 어감을 가진 글자라 할 수 있다. 曰자는 부수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말'과 관련되거나 아무 의미 없이 모양자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갑골문

갑골문

금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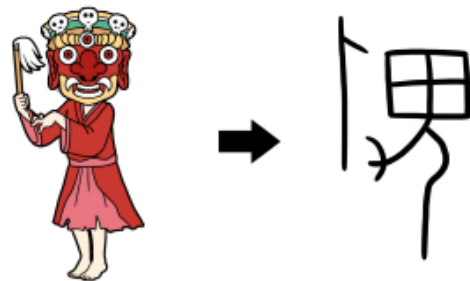
소전

소전

해서

해서

회의문자①



畏

두려워할
외:

畏자는 '두려워하다'나 '경외하다', '꺼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畏자는 田(밭 전)자와 𠂔(필 소)자, 人(사람 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畏자의 갑골문을 보면 가면을 쓴 사람이 뿔뿔이를 들고 있는 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고대에는 제사장이 가면을 쓰고 제를 지냈다. 그러니 畏자는 가면을 쓴 제사장이 주술 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신과 소통을 대변하던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경외와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畏자는 '두려워하다'나 '경외하다', '꺼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갑골문

금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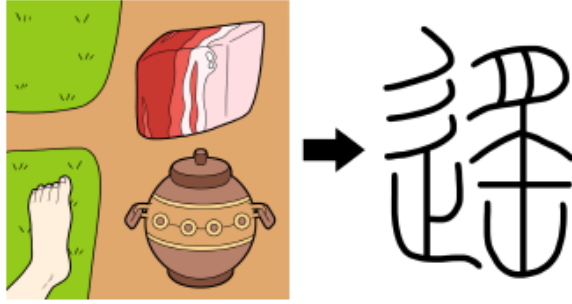
소전

소전

해서

해서

회의문자①



遙

멀 요

遙자는 '멀다'나 '아득하다', '떠돌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遙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遙(질그릇 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遙자는 항아리 위에 고기를 얹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항아리를 그린 遙자와 길을 그린 辵자가 왜 '멀다'나 '아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일까? 집 근처에 우물이 없다면 먼 곳에서 물을 길어 와야 했을 것이다. 遙자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글자로 항아리를 이고 먼 곳으로 물을 길으러 간다는 의미에서 '멀다'나 '아득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遙

소전

遙

해서

회의문자①



腰

허리 요

腰자는 '허리'나 '중요한 곳'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腰자는 月(육달 월)자와 要(구할 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要자는 여자가 허리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소전까지만 하더라도 要자가 '허리'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要자가 '구하다'나 '원하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해서에서는 여기에 月자를 더한 腰자가 '허리'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腰

갑골문

腰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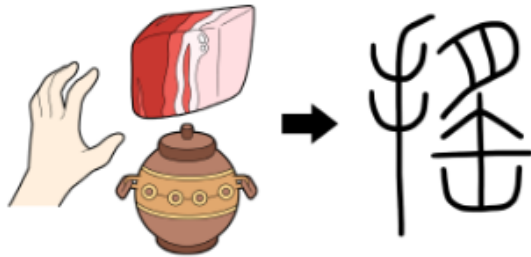
腰

소전

腰

해서

회의문자①



搖

흔들 요

搖자는 '흔들리다'나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搖자는 手(손 수)자와 搖(질그릇 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搖자는 '항아리'를 뜻하는 缶(장군 부)자 위에 고깃덩어리를 얹어 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질그릇'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고기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그린 缶자에 手자를 결합한 搖자는 고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항아리가 흔들린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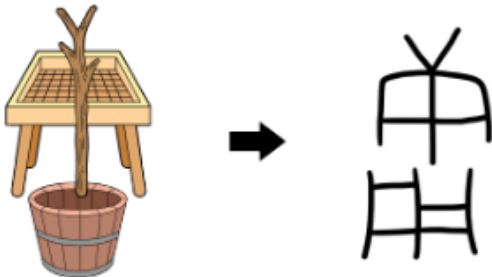
搖

소전

搖

해서

회의문자①



庸

땃땃할
용

庸자는 '(사람을)쓰다'나 '채용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庸자는 庚(천간 경)자와 用(쓸 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用자는 나무로 만든 통을 그린 것으로 '쓰다'나 '부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庚자는 곡식의 낱알을 털어내는 '탈곡기'를 그린 것이다. 그러니 庸자는 탈곡기 아래로 나무통을 받쳐놓은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탈곡기 아래에 통을 받쳐놓았다는 것은 지금 탈곡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庸자의 본래 의미도 '탈곡기를 사용한다.'였다. 그러나 지금의 庸자는 사람을 쓴다는 의미에서 '채용하다'나 '쓰다'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庸

갑골문

庸

금문

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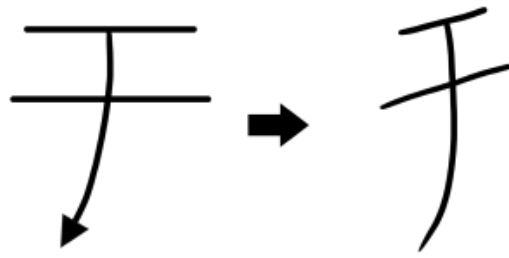
소전

庸

해서

3
-
199


상형문자①



于

어조사
우

于자는 ‘~에서’나 ‘~부터’, ‘~까지’와 같은 어조사로 쓰이는 글자이다. 于자는 ‘어’와 ‘우’ 두 가지 발음을 갖고 있다. 于자는 二(두 이)자가 부수로 지정되어는 있지만, 숫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于자는 亏(어조사 우)자의 약자(略字)로 亏자와 마찬가지로 무언가가 굽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유래와는 관계없이 于자는 어조사로 쓰이거나 ‘향하다’나 ‘동작하다’라는 뜻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干(방패 간)자와 혼동되기 쉽다는 점이다. 干자는 아래 획이 단정하게 끝나지만 于자는 빠침이 있는 것으로 구분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
-
200

상형문자①

尤

더욱 우

끝을 一(일)로 고정(固定)시키고 반대(反對) 쪽을 잡고 구부리는 모양을 나타냄. 일설(一說)에는 손에서 물건(物件)이 떨어지는 모양으로서, 예사 보통(普通)이 아니다→뛰어나다의 뜻이 되었다 함. 음(音)을 빌어 탓하다의 뜻으로 씀.